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 예배 후에 역할공동체 임원 선출 모임이 있습니다.
- 멧쟁이학교와 꾸러기학교 봄 학기가 오늘부터 2주간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졸업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제 19회 사랑방공동체 학교 연합졸업식이 다음 주일(9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감사)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5 호

2025년 2월 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설 연휴, 외로운 사람들 .

설날. 그리고 연휴. 각각이 봐도, 함께 모아 보아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설은 음력 1월 1일을 가리키는 단어로, 한 해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날을 전후로 하는 설날은 현재 양력을 주로 쓰고 있는 현대 한국에서도 지키는, 한 해에 있어 최초의 명절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설을 쇠는 것이 해가 바뀌며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도 더해져, 나이를 뜻하는 '살'이란 단어도 파생시켰으니 가히 그 영향력을 짐작할만합니다.

더구나 이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설날은 오랜만에 일가친척들을 만나 뵙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세배와 용돈이 오고 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흔히 어린애가 나이를 더 먹고 싶어서 떡국을 더 먹었다던가, 세뱃돈을 두 배로 받고 싶어서 절을 두 번 해서 혼났다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어느 때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은 세뱃돈을 부모님께 헌납하게 되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오곤 하지요. 어쨌든 설날은 많은 사람에게(특히 어린 연령층에게) 긍정적인 기억들로 남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그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더는 제사와 차례를 드리지 않아 가족 간의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축약되거나, 이번 같이 연휴가 긴 경우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가정의 불화, 해외 거주 등 다양한 이유로 명절 자체를 쇠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이 사회문화가 돌아가도록 떠받쳐야 하기에, 명절을 명절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 종사자, 연휴 없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돌볼 병원 관련자,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경비업계 종사자, 차마 이 대목을 놓칠 수 없는 일용직과 개인사업자들까지. 알고 보면

이때 큰 비용을 들여 누리는 풍요의 뒷면에는, 명절과 노동을 교환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독사 같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일반적으로 홀로 외로이 살다가 아무에게도 알려지는 일 없이 죽고 나서 이후에 발견되는 방식의 사망방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에는 실패와 상실감 누적, 친구나 이웃과의 적은 만남, 거처의 잦은 이동, 주변의 돌봄과 지원 중단 등이 큰 영향을 줍니다. 더구나 고독사까진 아니더라도,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이 더해지는 사람들은 흔히 중독 현상, 사이비 종교, 도박 등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일관되게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예컨대 고대 구약 시절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고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설날과 같이 모두가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비록 큰 도움은 아닐 수 있더라도, 우리의 눈에 띄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안녕과 행복을 비는 말 한마디, 위해 드리는 기도 한 토막,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으로 연휴 마무리를 은혜롭게 채우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우리가 이런 시도들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나 자주 입에 담는) 새해 복을 많이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도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을 많이 받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
<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25, 284, 543 / 28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창세기 29장
제목 : 야곱이 경험한 하란에서의 삶

1-15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다.

해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이다.
적용: 신앙으로 홀로서기를 하자.

16-30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다.

해석: 선택받은 야곱도 세상살이에서 속임을 당할 수 있다.
적용: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보상)를 바라며 인내하자.

31-35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신다.
적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역사, 일해가시는 것에 동참할 것을 기쁨으로 따라가자.

‘무림 고수’를 기대하며

회사에서는 가장 연장자이지만, 교회에만 오면 막내가 된다. 비움 사랑방에서도 막내인 까닭일까 방장을 맡고 있고(교회 후보 이 코너에 내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체운영위원회에서도 막내 라인에 드는 듯하다. 이제 내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 교회 공동체에 나이 많은 지체분들이 많아진 탓이리라.

사랑방교회가 종로에 있던 시절, 갓 대학생의 티를 벗은 때 아내를 쫓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당시(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학생들이 군사정권의 끝자락을 대상으로 거리 시위를 벌였다. 한번은 종로 쪽 시위에 가담했다가 최루탄을 피해 교회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당시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박인옥 목사님께서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정태일 목사님께서도 이런 일에 별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랑방교회의 이런 모습에 반했던 것 같다. 당시 청년들은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후보를 제작했다.

종로 시절 비좁은 공간을 벗어나 포천 무림리 자연으로 터를 옮기던 때는 광주 비행장에서 기상장교로 군 복무 중이라 아내와 교회를 떠나 있었다. 그렇지만 교회 이전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시 붓던 적금을 꺼서 건축 헌금에 동참했던 기억도 난다. 제대 후 매주 ‘숲이 우거진 동네’ 무림리에 자리한 교회를 다니며 종로 시절 매월 마지막 주일에 떠났던 자연 예배가 떠올랐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꼈다고 할까.

오늘 공동체운영위 단독방에 역할공동체별로 참여하는 지체들의 명단이 올라왔다. 기존 구성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띄었다. 10여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과학기자 연수를 할 때 그곳 장로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연령대별로 대표(장로)를 뽑아 교회를 꾸려 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역할공동체에서 역할을 맡고 공동체운영위에도 참여하면 좋겠다. 다들 정태일 목사님을 비롯한 무림리 사랑방공동체의 신앙 고수를 본받아 ‘무림 고수’가 되기를 기대한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서 61 : 1-2 인도자
2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17-18 인도자
28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무엇이 은혜를 가로 막는가? ”

누가복음 4 : 21 - 30 설교자
주품예(57) 미리내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46 다함께
인도자
410(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윤순 / 봉헌위원 : 김병우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실천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 안에 편견을 깨어 주십시오. 아멘.

무엇이 은혜를 가로 막는가?

나사렛 방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 교장으로 오셨습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이 동네 출신임을 알고 낮잡아 보았습니다.

이적을 구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적을 구하며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 과부와 이방인 장군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완악한 속마음을 폭로하셨습니다. 격분한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절벽에 떠밀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은혜의 장벽. 사람들의 선입견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편견은 자신이 안다는 편견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듣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은혜의 성취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들음은 곧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잘 들읍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방학이 끝나갑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꾸러기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꾸러기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꾸러기들 모습이 여전히 밝아보입니다. 얼굴만 보았지만 조금 더 자란 모습이 보입니다. 만나보면 키도 마음도 생각도 더 자라있겠지요.

꾸러기들은 설날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와 떡국도 먹고 오후에는 지음이네 집에 꾸러기 식구 중 네 가정이 모여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빠들에게 세배도 했다네요. 아름이네 전화를 하니 아름이가 수줍은 듯 웃으며 전화를 받고 옆에서 동생 다운이도 인사를 합니다. 아름에게는 월요일에 보자고 엄마랑 더 놀고 싶어도 꾸러기에는 씩씩하게 오자고 동생 다운이에게는 언니 따라오고 싶어도 3월까지 기다렸다가 만나자고 인사를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꾸러기들이 아름이네 모여 함께 놀았나 봅니다.

방학 동안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서 함께 논 꾸러기들이 학교에 모여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가 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벌써 작년 일이 되었네요. 작년 12월 12일 어린이학교 학년말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어린이 친구들은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지요. 이번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엄청 추운 날도 있었지만 친구들은 학기 중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무엇보다 빈둥빈둥 쉬어보는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겨울방학 중인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주간에는 선배님들에게 영어와 수학, 그리고 역사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고, 체육 선생님이 자 만능 스포츠맨인 다니, 리야 아버님의 섬김으로 탁구를 배우는 친

배움과 가르침

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함께 놀기도 해서 엄청 즐거웠다고 합니다.

6학년들은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졸업여행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여행 기간에도 선배들이 자신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용돈을 쪼개서 같은 반 동생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그 선물을 받아본 동생들은 우리 6학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알아줄 거예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은 개학날 챙겨 와야 하는 방학 과제에 슬슬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학교에 와서 숙제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6학년들은 이제 정말 단 이틀 동안 어린이학교 생활을 하고 나면 다음 주일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번 주는 어린이학교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많은 멋쟁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각자만의 계획에 따라 멋쟁이들은 휴식을 하고, 놀기도 하고, 설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학생회는 따로 학교에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활동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부 멋쟁이만 짧게 만났음에도 그렇게나 신나게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멋쟁이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면 얼마나 즐겁게 회포를 풀지 기대됩니다.

이번 주부터 멋쟁이학교는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봄학기는 일반적인 학과목학습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특히나 검정고시나 해외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년들은,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매진합니다. 교과 학습에 깊이 몰두하면서, 앞으로도 공부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방학숙제도 잘 챙겨와야 하겠지요?

< 교사 : 이어진 >

